

기독일보 창간 20주년,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하길”

미자립 교회를 돕는 연합 사역
 성경필사 장학금 통해 차세대 세위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이란 표어 아래 2004년에 1월 23일에 창간된 기독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워브릿지 교회 목회자 및 관계자들, 36명의 성경 필사 장학생들과 장학생 가정들을 초청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1월 27일(토) 오전 10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EM 채플실에는 미주 기독일보 창간 20주년 감사예배 및 성경 필사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 교회를 찾은 발걸음이 줄이였다.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의 인도로 시작된 1부 20주년 감사예배는 양국민 목사(함께하는 주은혜교회)의 찬양,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 교회)의 기도, 워브릿지 교회 영상 상영 및 특송,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오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고승희 목사(아름다운 교회)는 20년은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숫자라며, 책임을 저야 하는 때가 되었고, 20은 손과 발을 합친 수이기에, 손과 발로 섬겨야 하는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일보가 초대교회 바울



미주 기독일보 20주년 감사예배가 27일 오전10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최됐다. ©기독일보

의 서신이 그러했듯, 갈등을 봉합하며 교회의 연합을 위해 쓰임 받는 매체가 되길 바란다” 라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합을 통해 말씀이 삶에 개입할 때 다른 차원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차원으로 비약할 수 있다며, 하나님의 → 2면에서 계속

美 기독교 라디오, 동성결혼식 참석 조언한 프로그램 퇴출

미국의 한 보수적인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동성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문화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목회자의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제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올해 71세인 알리스터 배그(Alister Begg) 목사는 전국 1800개 방송국에서 전파되는 라디오 팟캐스트 ‘트루스포라이프’(Truth For Life)의 진행자이자, 클리블랜드 소재 파크사이드교회의 담임목사이자이다.

이 논란은 작년 9월 배그 목사가 그의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새 책 <기독교 선언문>(The Christian Manifesto)에 관한 토론 중 한 발언에서 발생했다. 배그 목사는 팟캐스트에서 한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가 트랜스젠더와 결혼할 예정이라며, 해당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자주 ‘내 손자가 트랜스젠더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알려달라’는 전화 질문을 받는다. 여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라며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람들은 이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손자께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신앙을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손자 분이 삶에서 내린 선택을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렇습니다’”라며 “나는 ‘그렇다면 좋습니다. 손자께서 그 사실을 안다면, 당신이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사 주길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배그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동성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문화가 교회에 대해 가진 “비관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의 불참은 그들로 하여금 ‘이들(기독교인)은 내가 항상 생각했던 대로다. 판단하고, 비판적이며, 어떤 것도 인정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강화할 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로 미묘한 차이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엔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예수님과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다리를 놓으려면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파크사이드교회의 알리스터 배그 담임목사. ©알리스터 배그 유튜브 캡처

그의 발언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 다시 등장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 6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배크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셀비의 광가상가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립시
 뱅크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행해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하나님의 영향력을 문화·역사적으로 심화시키는 역할 기대”



이인규 목사(기독교일보 대표)는 “기독교일보가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다. ©기독교일보



남가주 교계 인사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성경 필사 장학생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다. ©기독교일보

→ 1면 기사 (기독교일보 창간 20주년..) 에 이어서

“남성과 여성은 그 기능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졌다.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면 싸움 일이 없다. 다양한 의견들이 기독교일보를 통해 수렴되면 브릿지가 될 것이다. 다른 것을 합칠 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합쳐야 한다.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는 단위의 차이이다. 자기 단위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다.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 되지 않는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에 개입하면 달라진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가게 될 것이다.”

2부 창간 축하식이 박성호 목사(베이크스필드 ANC 온누리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20주년 기념 영상에 이어 이인규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창간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다.

이인규 목사는 “기독교일보가 지난 20년 동안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경적 가치 수호, 기독교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며

서 “그 결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독교 언론으로서 종교 자유, 북한인권, 동성애, 이슬람 등의 이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을 제시해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나아가 작은교회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위브리지 사역 및 다양한 장학사역들이 가능했던 것은 기독교일보의 비전에 함께 동참해주신 많은 독자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기독교일보는 20주년을 기점으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변치 않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비전을 선포했다.

최영봉 목사(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천 환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회장), 송태섭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 김정진 목사(기쁜우리교회), 김귀보 목사(큰나무 교회), 김한요 목사(베델 교회), 권혁빈 목사(SEED 교회), 김지훈 목사(동양선교교회), 김우준 목사(토크스조은교회),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의 영상 축하에 이어 박기호 목사(풀러선교신학대학원 원로교수, 기독교일보 편집고문)와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축하했다.

박기호 목사는 “20년전 기독교일보 설립 예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독교일보가 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신문으로 성장해온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위브리지 사역을 통해 한인교회에 기여해 온 것, 차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성경필사 사역을 해온 것은 너무 아름다운 사역이다”라고 축하했다.

박은성 목사는 “기독교일보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아름다운 장을 마련하는 교회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가스펠교회 담임)의 특송 후,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민종기 목사(KCMUSA 이사장, 충현선교교회 원로)가 격려사를 전했다.

송정명 목사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왔다는 것은 큰 credit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고 민종기 목사는 “미주에서 기독교일보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문화 역사적으로 심화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 왔다. 앞으로도 이민사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 2세, 3세를 향한 영향력이 심화되어지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는다”고 축하했다.

박성호 목사(베이크스필드 ANC 온누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3부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성경필사를 마친 총 36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임성진 총장(월드미션대학교)은 “여러분이 한 성경필사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을 쓰러뜨린 다윗의 손에 쥐어 있던 돌과 같다. 이미 여러분 손에 말씀이 들려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다윗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격려했다. 이상명 총장(미주장신)은 “필사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 나무, 다음 세대의 지도자이다”라고 격려했다.

36명의 장학생 가운데 소감문 심사를 통해 4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헌신상 Daniel Oh, ▶신실상 Onyu Seo, ▶은혜상 Erin Kim, ▶더디오상 Aimee Oh) 기준은 필사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지, 변화

가 일어났는지, 정성이 담겼는지, 조리있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냈는지였다.

이어서 장학생 대표로 Daniel Oh(West High School 12th)가 소감을 발표했다. 그는, 어려서 부터 예수를 믿었고 고등학생 때 세상을 향해 가려는 유혹이 있었지만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복음서를 필사하며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기원에 대해 배우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굳건해 질 수 있어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

마원철 목사(리페어서버트 대표)가 “You Raise Me Up”을 특송으로 부르며 케익 커팅식 후 사진 촬영으로 3부 순서가 끝났다.

리셉션이 이루어진 나성영락교회 체육관에는 학생들의 성경필사 노트가 전시되었고, 소리엘 장혁재 교수가 미주 기독교일보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공연을 진행했다. 주디 한 기자



기독교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예배 및 성경필사 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 ©기독교일보



학생들이 필사한 노트가 전시되었다. ©기독교일보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 (18차)

2021년 코비드 기간에 “성경, 빅픽처를 보라!”가 출판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10차례 목회자(선교사)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 되었습니다 (포항 신학교 평촌 몽골 이스라엘 브라질 뉴욕 뉴저지 아틀란타 등). 2023년에는 7차례 세미나(한국, 중국인, 유럽, 인도, 이스라엘, 메릴랜드 등)가 있었고 2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LA지역에서 제18차 저자세미나를 가지려 합니다. 꼭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김인식 목사 드림

- 대 상 : 목회자, 선교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 일 정 : 2024년 2월 26일(월)~27일(화) 9:30~5:00
- 장 소 : 또감사교회 (최경욱 목사) T.(323)225-9191 440 Shatto Pl, 4th Fl, Los Angeles, CA 90020
- 문 의 : 김웅자 사모 T.(818)825-1764 glovic(카톡 ID)
- 등 록 : 카톡/문자/mixthus@gmail.com
- 신청마감 : 2월 20일(화)까지(선착순 50명) (등록비:무료) (점심 제공/ 강의안(PDF)과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증정



김인식 원로목사 웨스트힐 장로교회



“예배·선교·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심의 사명 다할 것”

19주년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 박성호 담임목사 위임 및 향존직 임직 은퇴 감사예배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은 베이커스필드ANC 온누리교회(박성호 목사)가 28일 교회 본당에서 임직 은퇴 및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박성호 목사가 5대 담임목사로 위임됐고 주희종 장로 이남은 권사가 은퇴했다. 또 박경춘, 박진영, 오영은, 오은규, 윤영미, 윤자원, 윤수, 윤혜진, 이고은 씨가 안수집사로 임직했다.

이날 임직감사예배는 선랜드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 담임목사, CRC 교단 한인디렉터 최태석 목사, 베이커스필드 목회자협의회 회장 고의영 목사와 베이커스필드 지역 목회자들과 축하객 250여 명이 함께했다.

박성호 목사는 위임인사에서 “남가주 이민교회와 ANC 온누리 공동체를 깊이 사랑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ANC 공동체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며 “베이커스필드 지역 복음화를 위해 8개의 한인교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목사가 집례한 이날 예배에서 이주환 장로가 대표 기도한 후에 김태형 목사(선랜드ANC온누리교회)가 <섬김의 능력>(눅10:16-2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오늘의 교회가 가져야 할 사역의 자세와 비밀은 섬김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70인을 돌씩 파송하시며 팀 사역을 하게 하셨다. 이들이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의 사역이 무너졌고 이들은 큰 기쁨을 안고 주님께 돌아와 보고했다”며 온누리 공동체에 이런



창립 19주년을 맞은 베이커스필드ANC 온누리교회(박성호 목사)가 28일 교회 본당에서 임직 은퇴 및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길 권면했다.

이어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기 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생명책에 기록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자”고 덧붙였다.

설교에 이어 오재현 장로가 피택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은퇴, 담임목사 위임 경과를 보고한 뒤 최태석 목사의 사회로 임직서약과 안수기도 임직패 증정 임직 선포 순으로 임직, 은퇴, 담임목사 위임식이 거행됐다.

베이커스필드지역 목회자협의회 회장인 고의영 목사(베이커스필드 사랑의교회 담임)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 신실한 목회자를 맞이하게 된 베이커스 ANC 온누리교회를 축복한다.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CRC 한인디렉터 최태석 목사는 “작고 느리고 지속적이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

드리고 싶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선한 주의 공동체가 되어라”라고 권면했다.

윤영미 집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베이커스 온누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목사님과 성도

들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임직자 대표로 인사했다.

ANC 남성중창단이 특송과 축가가 불렀고 유진소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윤창률목사(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담임)가 영상으로 축하를 전해왔다. 모든예배는 박성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성호(Amos Sungho Park) 목사는 바일라 대학(1986-1990), 탈봇 신학대학원(1991-1994)을 졸업했고, 미드웨스턴 배티스트 신학대학원(2020-현재)에서 신학석사 및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WMC 선교단(World Mission Crusades for Christ)에서 리더로 섬겼으며, 미주개혁대학교(Reformed University, 2016-2021)에서 채플 인도, 미주평안교회, 헤브론장로교회, 미주성산교회 부목사(1987-2001), 선랜드 ANC온누리교회 부목사(2002-2007), 만남의 교회 담임 목사(2007-2012), 인랜드 ANC온누리교회 담임 목사(2013-2016), 선랜드 ACN 온누리교회 총괄목사(2017-현재)로 섬겼다. 가족은 아내 Jinwon Park 사모와 딸 Phoebe Park 씨가 있다. 조셉 리 기자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임직자들. ©기독일보

나눔과섬김의교회 성전 이전예배, “나눔의 삶에는 풍성함 있어”



나눔과섬김의교회(엘리아 김 목사)가 28일 오후 5시에 성전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나눔과섬김의교회(엘리아 김 목사)가 28일 오후 5시에 성전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나눔과 삶”(누가복음 6:38)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엘리아 김 목사는 나누는 삶에서 오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나누는 삶에서 풍성함이 따라온다. 어리석음은

탐욕과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나누고 기다리면 후에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때로는 은밀한 나눔,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는 나눔의 이유는, 그가 소유한 청지기 의식에서 온다. 감사와 순수한 사람으로 나누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하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고 형통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은 나눔, 두 손을 펼 때 풍성히 주어진다. 하지만 나쁜 것을 심으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와 영생을 주셨다.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것보다 귀한 선물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있었지만,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사와 격려사를 한 목회자들은 “목사님의 설교 피드백을 들어보면 설교가 은혜로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나눔과섬김의교회를 보게 된다. 이곳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첫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

다. 그래서 늘 교회에 모이기를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눔과 섬김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를 밝게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예배에서는 대표기도에 서사라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성경봉독에 조은혜 목사, 봉헌기도에 김선광 목사(미주장신회 동문회장), 봉헌특송에 손사라 목사, 격려사에 진건호 목사(RPCA총회장), 김인철 목사(RPCA증경총회장), 축사에 이현욱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민준기 목사, 축도에 강성수 목사(RPCA증경총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눔과섬김의교회는 LA 한인타운 웨스턴+5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매주일 오후 7시에 웨스턴교회의 저녁예배가 진행된다. **나눔과섬김의교회: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문의: 213-272-6031 토마스 맹 기자**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에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SEOUL MEDICAL GROUP

“렌트비로 고생하는 개척교회 돕고 싶다”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 가운데 마음이 열린 분이 있으면 개척교회 목회자와 연결해 드리려 한다. 렌트비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는 분들이 계신다. 대학원 졸업할 때 교수가 마지막 때 키워드가 연합이라며,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도 돌아보게 되었고, 교회를 연결해 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회 건물이 없고, 매달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위한 연합 사역이 남가주에서 시작됐다. 개척교회의 렌트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건호 목사(하톤교회, RPCA총회장)는 개척교회와 미국 교회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그의 사역 방향을 정했다.

총신대를 졸업하고, 1999년 미국으로 건너온 진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던 나사렛 교단의 교회에 렌트비 1000달러 씩을 내며 교회를 개척했다. 1000달러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그는 그 교회에서 위임을 도와 드리며, 대신 렌트비를 받지 말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수정했다. 세월이 흘러 진 목사는 나사렛 교단 남서부지방회 회장이 되었다. 그 당시 나사렛 교단의 교회 담임 목사가 결혼하면서 그 교회를 떠났고, 진 목사는 그 교회를 이어받았다.

미국 교회 문 두드리면, 렌트비 없이 사용 가능해

진건호 목사는 렌트비의 부담 때문에 힘겹게 개척교회 목회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 미국 교회의 공간을 빌려서 목회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한다. “미국 교회들이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안 드린다. 문을 두드리면 어느 교단이든 교회를 쓸 수 있다. 그렇게 두드리지 않고 개척하는 분들 현황을 보니, 3



천, 4천, 5천 달러 렌트비를 낸다. 그렇게 돈을 내는데 교인은 30명 정도이다. 렌트비를 내고 나면 교회 재정에 남는 게 거의 없다.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 저는 우연히 나사렛 교단에 가입해서 교실 33개가 있는 큰 교회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달 총 현금이 천 달러가 안 나오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며,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고, 가든 그로브의 선한 빛 교회와 웨스턴 교회를 렌트비 없이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렸다.”

렌트비 없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이 개척교회들은 전기 세만 내거나, 수입의 십일조를 본 교회에 내면 된다. 그는 미국 교단과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커뮤니케이션하며, 개척교회를 돕고자 한다.

“대학원 졸업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때 키워드는 연합’ 라는 말씀이 마음이 남아”

연합사역의 구체적 계획: 연합 VBS

이 사역 뿐 아니라 진 목사에게는 마지막 때 연합 사역을 위한 몇가지 계획이 더 있다. 개척교회가 10개가 세워지면, 이들 교회를 연합해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여는 것이다. 한 개척교회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여는 것은 어렵지만 10개의 교회가 연합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회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10개 교회 연합 효도관광 계획

또 하나의 계획은 10개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들 교회의 시니어분들을 위해 효도관광을 보내드리는 것이다. 시니어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대형 교회와 달리, 작은교회들은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작은교회들도 연합하면, 시니어들을 위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회의 잊혀진 전통, 저녁 찬양 예배 되살리기

세 번째, 진건호 목사는 한국 교회 초창기에 주일 저녁에도 모여 찬양예배를 드린 전통을 다시 살리기 위해 저녁 예배 부흥을 꿈꾼다.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들은, 렌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다. 또 주일날 교회에 못 오고 일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7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회에 가려 해도 이미 예배는 다 끝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다. 저녁 예배를 찾는 분들과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 꿇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는 이들, 기도 처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웨스턴교회(나눔과 섬김교회 공간, 웨스턴 +5가에 위치)에서 저녁 7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예배 때 저녁 예배에 대한 소문을 듣고 4명이 스스로 찾아 왔다.”

진 목사는 “18살에 서원하고, 30대에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며 사역의 열정이 식어가는 이들을 보았다. 제가 45년 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목회를 시작한 분들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저의 사역 방향은 이처럼 개척교회를 돕고 연합을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건호목사는 이처럼 교회 공간을 찾고 있는 개척교회를 찾고 있다. 그는 이들을 위해 미국교회(혹은 한인교회) 문을 끊임 없이 문을 두드리 보겠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든지, 은혜로운 때가 되면 바로 쓸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맹기자 문의: 310 706 7721(진건호 목사)

“다가오는 설날엔 미주복음방송 ‘2024 나눔On희망On 자선콘서트’



“기억하고, 함께 하며, 전수하는 것!” 은 기독교의 정신과도 많이 닮아 있다. 바로 그 마음을 담아,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에서는 2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남가주동신교회, LA주님의영광교회,얼바인 베렐교회 3곳에서 ‘2024 나눔On 희망 On’ 자선콘서트를 개최하고, 이어 2월 13일(화)에는 ‘나눔On 공개모금생방송’ 을 진행한다.

미주복음방송의 ‘나눔On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시작돼 지난 2023년까지 4년간 총 75만불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 첫 나눔은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주요 공헌단체를 지원하는 일로 시작했고 점차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아이티 난민, 튀르키예

재난 지원 등으로 확대됐다. 미주복음방송은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 ‘나눔On 프로젝트’ 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나눔On콘서트’에는 손경민목사와 The은혜 워십팀 (찬양사역자 이윤화, 찬양사역자 주리,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해 의미가 깊다.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은 이번 콘서트는 자선콘서트인만큼 후원티켓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나눔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번 콘서트는 2월 9일(금)부터~2월 11일(일)까지 LA와 부에나파, 얼바인에 각각 소

재한 주님의영광교회와 남가주동신교회, 베렐교회에서 개최되며, 후원티켓은 \$20에 구매할 수 있다. 티켓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 및 전화문의 구매가 가능하며,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 소재 9곳의 기독교 서점과 교회 서점 등에서 판매된다.

이번 자선콘서트와 공개모금생방송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의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및 아이티의 쓰레기 마을 아이들 지원뿐 아니라 남가주 지역 내 여러 자선단체들을 돕는 일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https://kgbc.com>) 문의: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교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유해석교수 초청 선교 부흥회

너의 하나님을 보제하라

사 40:9

[로스앤젤레스 집회]
 2월 7일(수) 오후 7:30 세리토스 선교교회 설교
 2월 8일(금) 오후 7:30 감사한인교회 설교
 2월 10일(토) 오전 6:00 한길교회설교 및 세미나
 2월 11일(주일) 1부 오전 8:30 / 2부 오전 11:00 웨스트힐 장로교회 설교

유해석 교수 학력 및 약력

- 총신대학교(B.A.)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 영국 웨일즈대학교 신학/이슬람학(M.Phil., Ph.D.)
- 칼빈대학교 대학원(Th.D.)
- 전) GMS/OM 소속 아랍트 선교사
-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주임교수
- 총신대학교 선교연구소 소장
- FIM 국제선교회 대표

1월 26일(금)~28일(주일) **뉴욕 센츨럴 교회 부흥회**
 2월 2일(금)~ 4일(주일) **산호세 온누리 교회 부흥회**
 2월 16일(금)~18일(주일) **달라스 빛내리 교회 선교부흥회**
 2월 20일(화)~21일(수) **알리바마 G3 매디슨 교회 부흥회**
 2월 23일(금)~25일(주일) **볼티모어 뱀엘교회 부흥회**

강사 및 세미나 미리 만나보기

우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이슬람 '알라' 기독교 '하나님' 같은 신인가?

문의:기독교일보 T.(213)738-0403, (213)434-1170 chdailya@gmail.com

C'est si bon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2024 세시봉 엘에이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세시봉 콘서트

공연 정보

- ★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 ★ 야마바 극장 (777 San Manuel Blvd S, Highland, CA 92346)

티켓 안내

- ★ 무료 입장 (센터메디컬그룹 가입된 환자 only)
- ★ 티켓 구매 (센터메디컬그룹 미가입자분들은 야마바 극장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

- ★ 714-904-1701 (평일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30분)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세시봉

2024년 3월 16일 (토) 19시 야마바 극장

신학자 칼 트루먼 “기독교 신자, 동성 결혼식 참석 말아야”

미국의 신학자 칼 트루먼(Carl Trueman)이 최근 칼럼에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 결혼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동성 결혼식 참석이 그 관계를 인정하고, “신약 성경의 핵심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트루먼 교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그로브 시티 칼리지의 성서 및 종교학 교수이며 ‘현대 자아의 부상과 승리’ 및 다수의 저서를 저술했다. 그는 퍼스트 씽스(First Things)에 실린 자신의 칼럼에서 사회의 세속화로 기독교인들이 동성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루먼은 “기독교인이 동성애자 결혼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그 커플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혐오감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 또는 모욕감이나 상처를 주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느 쪽이



2023년 고전신학을 위한 센터(Center for Classical Theology)가 주최한 학술 대회에서 칼 트루먼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Credo 유튜브 캡처

든 그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인은 비록 커플에게 도덕적으로 애매한 사랑을 보여주거나, 모욕감을 주지 않으므로 써 얻는 유익이 무엇이든, 그 참석의 대가는 크다”면서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에 관한 최근 성명은 많

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동성 결혼식 참석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개인과 교회에 일어날 혼란이 훨씬 클 수 있다. 결국 ‘사랑’을 보여주거나 모욕감을 주지 않기 위한 참석은 이름 없는 축복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트루먼은 기독교인이 참석을 거절해야 하는 다른 이유들

을 제시했다.

그는 “공동기도서를 포함한 많은 결혼 예배는 주례자가 참석자 중에 누구라도 그 커플이 혼인해선 안 되는 이유를 아는지 문도록 요구된다”며 “그때 기독교인은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오히려 그런 식의 개입이 예배 참석을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는 성, 성별 및 인간 본성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에서 분리될 수 없다. 만약 결혼이 성별 간 보완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어떤 결혼이든 창조의 기독교적 이해에 대한 도전”이라며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동성 결혼식에 참석을 거절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루먼은 “초대에 대한 거절을 반드시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한 거부를 ‘혐오’로 취급하

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세속 시대의 이해이지, 기독교 신앙의 이해가 아니”라며 “참석 거부가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모욕 자체를 도덕적 범주화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범주를 취향의 미학적 범주로 대체하는 것이다. 후자는 언제나 도덕적 문제의 영역에서 전자에 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동성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루먼은 “이는 신체적 성별에 대한 양보를 의미하며,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구별의 중요성을 지키려는 모든 시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성경의 핵심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의식을 승인하는 것”이라며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지불하는 대가가 매우 크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것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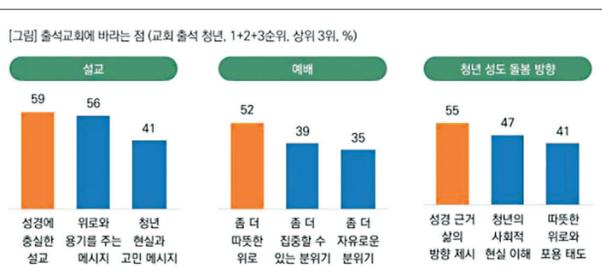
교회 청년들의 바람, ‘위로’ 보다 ‘성경적 삶의 방향 제시’

교회 청년들이 바라는 설교, 묵양의 방식은 무엇일까.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메시지보다 ‘성경에 충실한 설교’, 따뜻한 위로보다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 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의 ‘기독교 청년 인식 조사’를 토대로,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이터)가 네이버즈 226에서 가나안 청년들이 아닌 ‘출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민과 상황을 살펴봤다.

교회 출석 청년들에게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은 결과 ‘사람을 위로하는’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상과 다른(22%), 정의롭고 개혁적인(9%), 사회를 통합하는(7%)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이미지였다. 편향/배타적인(6%), 권위적인(5%), 물질적인(5%) 등의 부정적 이미지도 존재했다.

교회와 사회 각각의 인식에 대한 차이로는 신체적 측면에서 안전함(교회 59%, 사회 31%), 정서적 측면에서 안전함(54%, 28%), 평등함(51%, 17%), 정의로움(50%, 14%) 등 사회보다 교회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이 컸다. 다만 “마음을 터 놓을 친구가 있다”에



출석교회에 바라는 점.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해서는 교회 33%, 사회 59%로, 교회 내 깊은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성직자의 긍정적 이미지는 목회자가 신부/승려보다 다소 약했다. ‘존경받는’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경건한, 친절한, 위로하는, 베푸는’ 이미지에서 이들보다 낮고, ‘권위적인, 위선적인’ 이미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기대하는 설교, 예배, 돌봄 방향에서 설교와 관련, 청년들은 성경에 충실한 설교(59%)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56%)나 청년 현실과 고민 메시지(41%)보다 더 원했다.

예배에 대해선 좀 더 따뜻한 위로(52%)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39%), 좀 더 자유로

운 분위기(35%)보다 높았고, 돌봄에선 성경 근거 삶의 방향 제시(55%)를 청년의 사회적 현실 이해(47%), 따뜻한 위로와 포용 태도(41%)보다 선호했다.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할 점에서는 예배와 영성의 회복(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의, 봉사 등의 사회적 책임(45%),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42%), 공동체성 회복(30%), 교회 내 수평적인 소통(27%)을 선택해, 기본적으로 예배와 영성 회복에 대한 목마름과, 지성적 신앙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교회 출석 청년들조차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만족은 40%였지만, 보통(34%), 불만족(26%)도 적지 않았다. 만족

→ 1면 기사 <美 기독교 라디오...>에 이어서

이후,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의 라디오 사역인 ‘미국가족라디오’(AFR)는 10년 이상 송출한 팟캐스트 ‘트루스 포라이프’를 더 이상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FR은 성명문에 “최근 우리는 배그 목사가 비성경적인 발언을 했으며, 그 발언이 수십 년간 청취자들이 기대해온 그의 성경적 충실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며 “동성애자 두 명 간의 성경에 어긋나는 결혼식에 가족이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배그 목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참석하고 선물을 가져가도록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가족협회는 한 남자

와 한 여자 간의 결혼이라는 성경적 모델을 벗어난 어떤 결합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성실한 행위라고 믿는다”라며 “우리의 지도부 팀은 알리시타 배그의 팀과 통화를 가졌지만, 그의 실수를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2022년에도 배그 목사는 로마서를 강의하며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 다뤘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두시라’는 제목의 동성애에 관한 2부작 설교 시리즈에서 동성 결혼이 성경과 양립할 수 있다는 개념에 반대했다. 당시 그는 “이것은 대안적인 생활방식이 아니다. 부자연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것(동성 결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표시”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김유진 기자

의 이유는 가족 간의 화목(28%), 삶이 재미있어서(26%)였고, 불만족의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39%), 삶이 재미없어서(21%) 순이었다.

만족도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자보다 기혼자에게서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신앙이 깊은 청년일수록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 청년 4명 중 1명은 외롭고 우울했다. 행복은 45%였지만 불안(37%), 지루(32%), 외로움, 우울(둘 다 26%)

도 적지 않았다.

교회 청년 56%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고, 그 이유로는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21%),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13%), 매주 교회 출석 부담(13%),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9%), 신앙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8%), 성도들과 갈등이 생겨서(7%) 등을 꼽았다. 또 교회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점·사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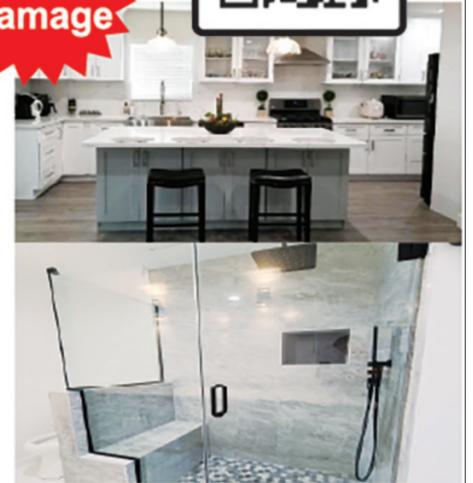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견적 상담

☎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견적 상담

☎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미주성결, 홀리 할렐루야 연합집회



미주 성결교회 엘에이 지방회(회장 재키카오후 목사)는 지난 2024년 1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홀리 할렐루야 연합 부흥회를 개최했다. ©미주 성결교회

미주성결교회 엘에이 지방회(회장 재키카오후 목사)는 지난 2024년 1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홀리 할렐루야 연합 부흥회를 개최했다. 윤학희 목사(천안성결교회)가 강사로 나선 본 집회에서 LA지방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지방회 소속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한 이번 부흥회에서 윤 목사는 본문 해석, 예화, 삶의 적용을 조화롭게 연결하며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 집회를 주관한 지방회장 재키 카오후 목사는 “매 시간마다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나눴다.

한국에서 건강한 목회로 지역과 교단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윤학희 목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해외 선교위원장을 지냈다. 게렛 신학대학원(Garret -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과 드루 신학교(Drew Divinity에서

공부하며 이민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민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갖게 되었다. 그는 천안교회 전도사, 육군 군종목사, 천안교회 부목사, 부여 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거치며 건실한 목회자로 세워졌다. 또한 농어촌 교회 돕기 사역을 통해 농어촌 지역 목회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은 목회자로도 잘 알려졌다.

한편, 이번 연합 부흥회는 엘에이 지방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연합 집회로, 엘에이 지역에 소재한 세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로 모였다. 행사를 주관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위한 찬양을 인도하며 교회의 연합과 협력, 동역의 모범을 보였다.

이 부흥회를 주관한 엘에이 지방회는, “이번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 앞으로 부흥 연합 집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한국어 배우러 왔다가 한인 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로 임명

시애틀지구총교회(담임 김성수 목사)에 미국인 유스 전도사가 부임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오는 2월 4일(주일)부터 시애틀지구총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할 개럿 우드(Garrett Woods) 전도사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가 처음 시애틀지구총교회의 문을 두드린 것도 “한인 교회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김성수 목사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고 망설였지만, 왠지 만나 보고 싶은 생각이 첫 만남을 가졌고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성수 목사는 수개월간 매주 수요일 그를 집에 초대해 만남과 대화를 이어갔다. 매번 식사를 마치고 4-5시간씩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 목사는 그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그의 부모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균형 잡힌 신학과 겸손한 신앙을 겸비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영화 제작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도 갖고 있음도 알게 됐다.

김 목사는 “청소년 담당 전도사는 미주 한인 교회 차세대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많은 한인 교회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청년부 전도사가 없는



시애틀지구총교회에 미국인 유스 전도사가 부임할 예정이다. 개럿 우드 전도사. © 기독교일보

한인 교회가 정말 많은데, 영어권 청년부 전도사를 세우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제자로 살겠다’는 소원으로 목회를 해 왔는데, 개럿 우드 전도사를 통해 차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제자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개럿 우드 전도사는 리전트 대학교(Regent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에서 성경과 신학으로 학부(BA)와 석사(MTS)과정을 마쳤고 기독교 관련 영화제작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을 제작해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강훈 기자의 Webridge 교회 탐방기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주백성 교회

예2018년 1월에 첫 예배를 드린 주백성 교회는 지난(至難)한 팬데믹의 세월을 이겨낸 교회이다.

김성규 목사와 총현선교회(당시 담임 민종기 목사) 출신의 개척 멤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열정은 코비드의 환란을 이겨냈다. 문제는 코비드 뿐만이 아니었다. 예배 장소를 네 번 옮겼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부담 없는 신앙인에서 믿음의 용사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의 하나인 총현선교회에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세워가는 작은 교회에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 현병길 집사는 매주 8시 예배에 나와 동영상을 만든다.

여건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다.

총신대학교와 총신 신학대학원, 탈봇(Talbot)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목회학을 공부한 김성규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헤아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한다.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하려 애를 쓴다. 21일 주일 설교에 김 목사는 6개의 참고 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전하려 애를 썼다.

지친 이민자의 상처를 싸매는 하나님의 마음 전해

아울러 김목사는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친 이민자들을 품어 주었다. 그는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성도들은 그 위로에 흠뻑 젖어 들었다.

이날 그는 호세아 6:1-3을 근거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설교 말씀을 전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풀어주었다. 설

교를 듣는 내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삶을 돌아보며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총현에서 교구 목사로, 젊은이 사역으로 목회 훈련 받아

김 목사는 총현선교회 교구 담당 목사로 오래 사역하였다. 이 경험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목회자의 마음을 길러 준 것이다. 이민자로 평생 살아온 성도를 섬기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목회가 김 목사에게 잘 어울리는 목회가 되었다.

김 목사는 젊은 날 대한민국 육군 군종목사로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했다. 최전방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 군종목사로 젊은이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는 또한 총현선교회에서 수년간 젊은이 사역을 했다. 이런 김 목사의 경험이 장차 주백성교회가 젊은이를 섬기는 교회로 발돋움하는데,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

강훈 기자



2018년 1월에 첫 예배를 드린 주백성 교회는 지난(至難)한 팬데믹의 세월을 이겨낸 교회이다. ©주백성교회

SHARING BREAD FOR SOUL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누십시오

목사님! 성도님!
2024년 사순절은 나눔의 영성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은 나눔으로 나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 사순절 개요 시작일: 2월 14일(재의 수요일) ~ 종료일: 3월 28일(성 금요일)

개인 전화(323-578-7933), 카톡(ID:Chanpan1), 혹은 이메일(chap1207@hotmail.com)로 참가를 통보하고 매일 한 끼 금식을 실천하며 금식비를 월드쉐어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회 참가의사를 월드쉐어 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프로그램 안내를 하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며 금식비를 월드쉐어를 통해 선교지로 보내면 됩니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Kangtg1207@gmail.com

월드쉐어 USA:수리남, 아이티, 도미니카 극빈아동 자료와 전쟁지역 아동 정보 제공하고 후원금 전달합니다.

아프리카 복음주의 지도자 “텔레비전 전도가 대사명 대신 못 해”



2020년 5월,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의 야외 프로그램에 초청된 오스카 아마에치나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아프리카미션&복음주의네트워크

아프리카 미전도종족 전도 사역자인 오스카 아마에치나(Oscar Amaechina) 목사가 쓴 “텔레비전 전도가 대사명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칼럼이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에 소개됐다. 오스카 아마에치나 목사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아프리카 미션 & 복음주의 네트워크(Afri-Mission and Evangelism Network, AMEN)’ 회장이다. 아마에치나 목사는 “대사명의 위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분이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며 “이 명령의 유명한 버전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르침은 1세대의 제자들부터 그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내려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가르침은 그대로인데 방법론이 바뀌는 것”이라며 “텔레비전 복음전도(Teleevangelism)는 설교자들이 텔레비전 방송을 매개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수단 중 하나였고, 많은 설교자들이 실제로 선교지에 가는 대신에 이 방법에 온 힘을 쏟았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기술이 복음 전파를 포함한 정보 보급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당연하다.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터넷과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며 “이것들은 복음을 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실제 선교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마에치나는 “이 방법이 선교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이유는 복음이 기본적인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은 전도자와 개종자 간의 효과적인 제자 훈련을 위한 관계를 포함한다”며 “많은 설교자들이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개종자들과 상호작용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누군가는 텔레비전에 손을 대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를 제자로 양육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면하여 증언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마서 10장 14-15절을 인용하여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들이 개종자들을 만나도록 과전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르친 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단 말인가? 성경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자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아마에치나는 “복음 전파에서 대중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유용한 도구이나 현장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 시도는 결국 결핍과 전도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실상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은 전자 기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심지어 소수의 사용자들조차 기독교 네트워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오는 2월 멕시코 전도대회에 2천여 교회 결집



2022년 10월 29일 이탈리아 밀라노 노이 페스티벌에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빌리그레함전도협회(BGEA)

멕시코에서 오는 2월 17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전도대회에 2000개 이상의 현지 교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BGEA)가 주최한 ‘에스페란자 CDMX 페스티벌’은 5만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BGEA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며,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폭력과 조직범죄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언론인을 포함한 특정 인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부패한 제도나 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공공 안전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레함 목사는 “멕시코시티로 돌아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돼 기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실

과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압도되어 있다”며 “이 위대한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멕시코시티 대형 경기장인 ‘팔리시오 데 로스 데스포르테스’에서 개최되며, 유명 기독교 음악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이 도시의 전역에 750대 이상의 버스가 운행되어 행사 참석자들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민간 신앙에서 기인한 ‘산타 무에르테’(Santa Muerte, 죽음의 성녀)는 사신 숭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숭배자들은 일명 ‘보니 레이디(Bony Lady)’가 그들의 서약이나 제물을 대가로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며 소원을 이루어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유행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멕시코시티에 복음의 빛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만)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오전 6:00
대학청년부/D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대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 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수요일 중보기도회 오전 9: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3부 영인예배 오전 11:00 토요일 한국교회 오전 9:00
주일 4부 오후 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음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리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리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리더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영광과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제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 테네시주 교회, 전 세계 빈곤 아동에 10만끼 식사 제공



2024년 1월 20일, 미국 테네시주 올테와에 위치한 크라이스트웨이교회(ChristWay Church)의 자원 봉사자들이 10만 1천끼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크라이스트웨이교회

미국 테네시 주의 한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의 가정들에게 전달될 10만 1천끼 이상의 식사를 포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올테와에 위치한 크라이스트웨이교회(ChristWay Church)는 지난 20일,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468개의 상자에 총 10만 1088개의 식사를 포장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크라이스트웨이교회의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로라 우튼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식사량은 굶주린 나라의 어린이 275명이 이제 일 년 동안 매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튼은 "크라이스트웨이가 인상적인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튼은 교회의 모토인 "사랑이 이유다(Love is Why)"와 누가복음 6장 20-21절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라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했다.

이 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 비영리 자선단체 '피드마이스타빙칠드런(Feed My Starving Children, FMSC)'이 주최하는 식사 포장 행사에 참여해왔으며, 이번 행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우튼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받은 풍성한 기부금에 대한 증거"라며 "약천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함께 동참하여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10만 1088개의 식사는 FMSC를 통해 전 세계로 배분되며, 아프리카 40개국, 아시아 16개국, 카리브해 14개국, 유럽 12개국, 중동 11개국 및 미주 18개 국가에 배송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美 UMC, 공식 탈퇴 절차 만료했지만 교회들은 계속 떠나”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지난해 말 공식적인 탈퇴 절차를 만료했지만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UMC 장정에는 2553항이라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동성결합을 축복하고 비독신 동성애자에게 안수할지 여부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으로 인해 교단에서 탈퇴하는 절차를 포함했다.

유엠뉴스(UM News)에 따르면 2553항은 2023년 말 만료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7천5백개 이상의 교회가 성공적으로 UMC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폴리스 섬의 세인트 폴 와카모 연합감리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2023년 말부터 UMC를 떠나는 투표를 진행해 왔다. 세인트폴교회의 J.R. 버진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지난 1월 21일 투표해 110대 38로 UMC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버진 목사는 "교회는 장정이 여러 분야에서 노골적으로 위반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UMC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며 "또한 인지된 위반 사항에 대한 영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라고 했다. 버진 목사에 따르면, UMC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회는 폐쇄된 교회 재산의 처분에 중점을 둔 장정 2549항을 통해 교회들이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2553항에 따라 탈퇴한 많은 교회들은 이후 2022년 출범한 보수적인 대안인 세계감리교회(GMC)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버진 목사는 CP에 현재 "세인트 폴 와카모 교회가 GMC에 합류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신중한 접근법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에이켄에 있는 세인트존스 연합감리교회에서도 발견됐다고 CP는 전했다. 이 교회는 이달 초 788대 109로 UMC 탈퇴를 가결해 87.8%의 찬성표를 얻었다.

세인트존스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인 팀 맥클렌드(Tim McClendon)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의 결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GMC, 파운드리 네트워크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꽤 오랫동안 생각해 볼 것이다.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맥클렌드 목사는 만료된 조항 2553과 마찬가지로 탈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 재산, 유동 자산 및 기타 평가 가치의 10%를 지불해야 한다고 CP에 말했다.

세인트 폴 연합감리교회와 마찬가지로, 맥클렌드 목사의 교회도 교단의 지도력이 장정의 규칙을 따르거나 시행하는 것을 종종 거부했기 때문에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몇 년 동안 UMC의 많은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성직자들은 동성혼을 주례하거나 동성애자 안수를 승인했다. 예를 들어, 2022년 UMC 서부지역총회는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의 세드릭 D. 브리지포스 목사가 남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으로 임명하기로 투표했다. 이러한 사례는 2019년 UMC 특별총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당시 총회에서 대다수의 대의원은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한 교단의 성경적 입장을 재확인한 '전통적 계획'으로 알려진 조치를 승인했다.

맥클렌드 목사는 CP에 "훈련"은 웨슬리안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다. 이는 성화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강조점을 나타낸다"라며 "2019년 총회가 전통적 계획을 채택한 후, 그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대할 많은 교단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로 투표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교회들은 지역단체가 이 결정을 인정할지 여부를 투표할 6월 연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회 홍보 책임자인 댄 오마라(Dan O'Mara)는 CP에 "2022년 지역 지도부가 '지역교회 식별 과정'으로 알려진 조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창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3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m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몰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명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품있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야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희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명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낙태 종식 위한 교회의 역할과 친생명 운동의 미래”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주 의사당 건물. ©위키피디아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및 이성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을 기각하며 법안 발의를 허용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상원은 24일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하원 법안 68호에 대한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로 24 대 8로 확정했다.

오하이오주에 본부를 둔 보수 기독교 운동가 단체인 ‘센터포크리스천버추’(Centre for Christian Virtue, CCV)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CCV 회장 에런 베어는 최근 성명에서 “어떤 강력하고 자금이 넉넉한 로비스트가 말하든 간에, 잘못된 몸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며 “오늘날 오하이오주는 착취적인 의료 산업에게 당신들의 부적절한 과학을 거부하며, 더 이상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실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베어 회장은 “이 주의 모든 젊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가질 것이며, 소년들과 경쟁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보장했다. 이는 오하이오에서의 전환점”이라며 “우리는 아동들이 피해를 입을 때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3년 12월, 드와인 주지사는 하원 법안 68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 법안이 부모가 트랜스젠더 자녀들을 위해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드와인은 당시 “많은 부모들이 오하이오 어린이 병원에서 제공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들의 자녀가 죽었을 것이라고 내게 이야기했다”면서 “만일 내가 하원 법안 68호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된다면, 오하이오주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두 부모보다 주정부가 자녀에게 의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와인은 의회의 우려에 일부 동의하여 미성년자의 성

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사춘기 차단제와 이성 호르몬 치료는 여전히 허용해왔다.

결국 이 행정명령은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보수 진영은 드와인의 노력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 진영은 그의 제한 명령이 트랜스젠더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오하이오 지부는 공동 성명에서 주지사의 명령이 “주 전역의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성인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며, 그들과 의사 사이에 정치인과 관료주의를 불필요하게 개입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단체들은 “트랜스젠더들의 생명과 그들의 기본적인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급진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제안들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하이오 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부 관리자들이 민간 의료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는 정치인이 아닌 가족과 의사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사회 보수 옹호 단체인 ‘미국 원칙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 APP)는 의회의 거부권 무효화를 “아동과 가족 보호를 위한 승리”로 평가했다. 테러 실링 APP 회장은 성명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아이들을 영구적이고 신체를 파괴하는 시술에 밀어 넣어서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여성 및 소녀 선수들을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실링 회장은 “우리는 오늘 오하이오 주의회가 주지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준 데 대해 오하이오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표한다. 향후 몇 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주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美 하원의장 “김정은, 인민의 종교 자유 거부”

마이크 존슨(Mike Johnson·52) 미국 하원의장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를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종교 자유 소송 변호사로 일했던 배경을 강조한 존슨 의장은 먼저 북한에 대해 “김정은은 인민의 모든 자유, 특히 종교 자유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어두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정권은 계속해서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과 소수 무슬림이 테러리스트 단체의 공격을 받고 살해된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과 쿠바의 미구엘 디아스 카넬은, 복음을 전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가톨릭 사제들과 침례교 목사들을 추축하고 투옥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해서는 “티베트 불교도들은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히고, 장기가 적출됐다. 위구르 무슬림들은 강제 불입, 강제구금, 재교육 등 대량학살 캠페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또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수용소의 비좁은 감방에서 고문과 세뇌를 당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미국은 대량 학살을 예방하고, 이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할 기회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존슨 의장은 “중국이 강제 노동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조항과 정신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 단결해야 한다. 위구르 대량 학살에 미국이 연루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2021년 7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2021년 12월 하원에서 428대 1로 승인됐다. 이 법안은 중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 물품, 품목, 특히 그러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확립했다. 존슨 의장은 앞서 언급한 소수종교인에 대한 처우와 시민들의 기회 부족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돌)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이영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성경학교 오후 7:30 한이영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OC예배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200M)
8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2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라세(Calling), 고치교(Hear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on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아기돌)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맘맘)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태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일기도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내선) / (714)853-4030(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예배 오전 11:00(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erjoeunchurch.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습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법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혈액순환 개선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합술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합술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뛰어난 효과를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OC전도회연합회 44대 회장 42대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27일(토) 오렌지카운티교회(김인철 목사)에서 44대 회장 42대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로드십(Lordship)은 각자의 사명에 따라 일하는 것
예수의 이름만 남기는 삶”
민김 신임 이사장, “병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27일(토) 오렌지카운티교회(담임 김인철 목사)에서 44대 회장 42대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44대 회장에는 현 신용 회장이 연임하고, 42대 이사장에는 직전 회장을 역임한 민김이 새로 취임했다.

이취임 윤우경 이사장은 “우리 단체만이 아니라 교계 단체가 연합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다 앞으로 교계 단체가 협력하고 연합해 더욱 많은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소감과 44대 임원들께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민김 신임 이사장은 “병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 저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이사장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최선을 다하는 2024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연임 소감에 나선 신용 회장은

“평신도 기독교 단체로서의 정체성에 걸맞은 활동과 44년의 역사에 걸맞은 인적 성장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OC 목사회 회장 이원석 목사와 부회장 강문수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했다. 연합회 부이사장 한창훈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부회장 한성준 집사가 골로새서 1:21-29 말씀을 읽고, 소프라노 지경 교수의 특송이 있었다. 설교는 OC교협 회장 박재만 목사가 맡았다.

박재만 목사는 로드십(Lordship)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21-29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1월에는 많은 단체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진다. 로드십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예수님 이름만 남기면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돌보이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돌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한다. 고난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

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전도회연합회 뿐만 아니라 OC교계에 있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2부 이취임식에서는 이취임하는 윤우경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취임하는 민김 이사장에게 취임패를, 2023년 OC교협 회장을 맡은 심상은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OC한인회 조봉남 회장을 비롯해 OC교계 단체장, 영미 의원 보좌관, 남가주교협 관계자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미주 CBMC, OC지도자협회, 한미시민권자협회, OC총청향우회 등 기관과 단체에서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연합회는 올 주요행사로 6월 2일(주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교회연합성가제>를, 10월 14일(월) 12시에 로스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제5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연다.

한편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 오전 7:30에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에 모여 조찬기도회를 갖고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신앙회복과 올바른 기독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OC인근지역의 평신도라면 교회나 교단을 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생물학적 男, 또 LA 한인타운 스파 여탕 출입

성전환 수술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출입 제제 못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출입하는 사건이 LA 한인타운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LA 월셔가 한 스파 여탕에 버젓이 출입했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목격자 제보에 의하면 지난 1월 20일(이하 현지시간) 낮 시간 스파를 방문해 옷을 벗고 여탕으로 들어가 있던 중, ‘생물학적 남성’임이 분명한 트랜스젠더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 심지어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교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여성 이용자들의 경우 남성 성기를 드러내고 여탕을 활보하는 트랜스젠더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 등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여성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저는 당시 알몸이었고, 상대는 분명히 생물학적 남성이었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넘어 심하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었다”며 “저를 무시하는 주체가 정부인지, 업소인지, 상대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다시는 스파를 못 가겠다는 것”이라고 호

소했다.

그러나 해당 스파 측은 “법 규정 때문에 트랜스젠더 남성 또는 여성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들의 여탕 출입을 막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지난해 6월 5일 워싱턴주 시애틀 린우드 한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차별 금지 위배’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언론은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예외 조항이 생겨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대용 기자

오렌지 카운티 민족학교 세금보고 무료대행

비영리단체 민족학교(사무국장 김진우)가 오는 2월 1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보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1991년부터 매년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었던 민족학교는 연방 국세청(IRS)의 VITA 파트너로서 모든 세금보고를 이 파일링을 통해 무료로 돕고 있다. 올해 오렌지 카운티 지부에서

10년만에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모든 파일은 현지 회계사(CPA)의 감수를 받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대상은 W-2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소유한 주택이 없고, 4인 가족 기준 2023년 총소득이 \$96,600 (1인 \$46,950, 2인 \$63,500, 3인 \$80,050) 미만이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영업 소득이 있거나 투자, 임대,

IRA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세금보고 장소는 오렌지카운티 민족학교이며 (62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1) 기간은 2월1일부터 3월 29일이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문의: 714-986-5957, taxreturn@krcla.org

기심으로 읽는  : 마태복음, 제자 되기 (5)

동방박사들이 만난 예수



김영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정착해 사는 이야기들을 모아 놓았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현자(賢者)들이다. 어느 날 그들은 왕의 출생을 의미하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당시에 헤롯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의 칭호를 하사받고 유대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의심 때문에 큰아들과 조강지처까지 죽인 사람이다. 헤롯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예루살렘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이

유 때문이다. 하나는 의심 많은 헤롯의 광기(狂氣)로 인하여 불어닥칠 피바람이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야에 대한 흥분 때문이었다. 음흉한 얼굴을 하고 헤롯 왕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던지시 물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근거는 미가 5장 2절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시작)에, 영원에 있느니라.”

왕궁을 나서니 박사들을 인도해 오던 별이 베들레헴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2017년 성탄절 이브에 우리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베들레헴을 방문했다. 그날은 온종일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높은 인공장벽으로 둘러싸인 베들레헴은 그 주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대대적인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베들레헴의 성탄절 이브는 한적했고 을씨년스러웠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목상했다. 예수님이 나시던 밤에도 비가 왔을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밤, 어둠 속의 베들레헴에도 적막과 고요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 예물들은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황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향과 몰약은 왕에게 드릴 만한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예물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 고대의 모든 왕들은 황금으로 그들의 권위를 표현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서 왕으로 오셨음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야 한다. 보이는 권세 앞에 복종하는 일도 쉽지 않다.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권세자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고 전심으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유향은 왕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물품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의 대표자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똑바로 믿자!’는 뜻이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믿자는 말이다. 대제사장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축복이 느껴지는가?

몰약은 왕의 죽음을 상징한다. 몰약은 시신의 부패를 늦출 목적으로 넣는 약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훗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1-2).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강태광 칼럼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종교개혁자들은 왜 사순절을 싫어했을까요?

4세기에 시작된 사순절은 한동안 건전한 형태로 발전했다. 그러나 중세로 접어들면서 사순절은 왜곡되기 시작했다. 애초에 사순절은 부활절 세례준비 기간이었지만 목적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10세기 이후 로마교회는 사순절을 금식 기간으로 규정했고, 점차 금육과 고행의 계절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중세 사순절은 지나치게 복잡한 규율과 엄격한 수칙으로 본래 정신은 완전히 잃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로 잘 알려진 테일러 마셜(Taylor Marshall)은 “중세의 사순절은 이슬람의 라마단보다 더 혹독했다(Medieval Lent was harder than Islamic Ramadan).” 라고 전한다. 그는 사순절의 기간(라마단 30일 정도)도 길었고, 금식과 금육의 내용도 훨씬 복잡하고 가혹했다고 밝힌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정한 ‘피가 섞인 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말라’는 규정이다. 이후 달걀과 치즈 등이 추가로 금지되었고, 점점 까다로운 규정이 추

가되었다. 양태자 박사는 게오르크 스텐켈을 인용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달걀을 금지한 것에 얽힌 얘기를 전한다. 사순절에 달걀을 금했기에 사순절이 끝나면 집마다 달걀이 넘쳐났고, 쌓인 달걀을 처리하기 위해 수도원이나 교회에 달걀로 소작료를 내거나 기부했고 이 달걀들로 교회는 부활절에 채색 달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부활절 계란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한다.

중세교회가 사순절에 육식은 금하고 생선을 허락하자 수도사들이 이 규칙을 변칙적으로 적용한 일화가 많다. 독일 바이에른에 한 수도원에서 사순절 기간에 오리 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오리가 물에 살기 때문에 어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참신한(?) 해석으로 오리 고기를 합법적(?)으로 먹었다.

다른 수도원에서는 능청스러운 해석으로 육식을 했다. 그들은 어류와 조류가 같은 종류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20절(“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는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다녀라”)을 인용하면서 같은 날 창조된 물고기와 새들은 같은 종족이라며 사순절에 새 고기를 먹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사순절 사건이 있다. 1522년 사순절에 취리히 인쇄업자 프로샤우어의 집에서 인쇄 노동자들이 성경출판 기념 파티를 하면서 소시지를 먹는 ‘사건’이 있었다. 프로샤우어는 “금식 기간에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소시지를 내놓았다. 로마교회는 이것을 문제 삼아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츠빙글리는 1522년 3월 23일 주일설교에 사순절 금식 규정은 교회가 정한 인간의 규범일 뿐이며 성경의 교훈은 가르침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순절에 육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츠빙글리의 이 설교는 이후에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판했고, 이 설교가 츠빙글리 종교개혁

의 도화선이 되었다. 츠빙글리 종교개혁은 사순절의 비판으로 출발했다. 그는 로마교회가 법과 규정을 남발하여 가련한 성도들의 양심을 옥죄는 죄를 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순절 금식 규정을 어길 때 처벌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성경)이 아닌 인간이 만든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천주교의 악습을 비판한 츠빙글리의 의견을 반영해 사순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기독교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온가족이 행복한 쇼핑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NEW 웹사이트
hswus.com

HAPPY NEW YEAR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홈쇼핑월드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평안함과
넉넉함이 함께하는 즐겁고 따뜻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홈쇼핑월드는 늘 희망 가득한 새해와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들께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홈쇼핑월드 대표 릭 김



진유철 칼럼

가장 좋은 진짜를 보는 눈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사람이란 항상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 갑니다. 지금 옷도 입을만한데 왜 새 옷을 사 려고 합니까? 지금 쓰는 물건도 아직 잘 쓸 수 있는데 왜 새 제품에 관심이 갑니까? 사 랑에겐 “더 좋은 것”을 향해 가는 마음이 있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붙들 게 되면 이전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버 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하늘나 라”를 보는 눈을 뗐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 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에 앉으셨느니라”(히12:2) 우리도 세상이 주 는 유혹과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원수마귀를 이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더 좋은 것”을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 는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입 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죄의 용 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 을 때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 복이 임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이 기는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바 라볼 때 세상이 주는 미움과 원망이 떠나가 고 감사가 임합니다. 육체를 가졌기에 다가 오는 질병을 이기고 치료와 소망의 삶을 삽 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을 이기는 부 활과 영생을 보는 눈이 뜨이는 삶을 살게 됩 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텔의 사과이야기’라는 유명한 희곡 이 있습니다. 14세기 초엽으로 스위스는 오 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습니 다. 오스트리아 총독인 ‘게슬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야만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었 습니다. 그는 길가에 높은 나무대기 위에 오스트리아 왕을 상징하는 모자를 걸어 놓 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 니다. 때마침 강한 사냥꾼 ‘윌리엄 텔’이 여섯 살 난 아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치면서 절 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 위에 사과를 얹고 텔로 하여금 활을 쏘게 했습니

다. 활을 잘 쏘는 그였지만,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차마 아들을 향해 활을 당길 수 없었던 윌리엄은 몇 번인가를 망설이고 망설인 후에 화살을 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는데 그 때 아들은 아 빠를 믿고 편안하고 밝은 표정의 미소를 짓 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은 활을 들어 크게 심호흡을 한 후에 활을 당겼습니다. 화 살은 활시위를 떠나 정확히 사과의 한 가운 데에 명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 을 거치며 잡혀있는 조국을 폭군의 지배에서 해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양궁 시합 점수로 말한다면 ‘윌리엄 텔’이 쏜 화살은 정 확히 10점 과녁에 맞힌 것이었습니다. 만약 9 점이나 8점에 맞았다면, 그것은 아들의 죽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관한 문 제일 때는 최선이야말로 차선이라도 최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를 보려고 할 때 는 비슷한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생명의 문 제는 8점이나 9점의 과녁과 같은 비슷한 신 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진짜이신 예수그 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로 진짜 를 보는 눈을 뜨고 2024년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롬!

남가주 단신

▶아이들보호법 주민발의안 청원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서명운동본부 발족. 캘리포니아의 무서운 악법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한인 교계에서도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 본부”가 발족되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서명운동을 위한 기도회와 청원서 서명 설명회를 2월 7일 오전 10시에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개최한다.

일시: 2월 07일 (수) 오전 10시부터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 목사)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에서는 2/9(금)~2/11(일)까지 LA와 부에나파크, 얼바인에 각각 소재한 주님의영광교회와 남가주동신교회, 베델교회에서 ‘2024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 트에는 손경민 목사와 The은혜 워십팀 (찬양사역자 이은화, 찬양사역자 주리, 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 한다.

티켓 구매: <https://kgbc.com>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 니어 대학이 봄학기를 2월 13일(화)에 개강한다. 등록금은 매월 100불.

웹사이트: <https://www.hyosarangusa.org/>
문의: (714) 833-2710 주소: 7342 Oranethorpe Ave #B 113 Buena Park CA 90621

구봉주 칼럼

탈교회화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Dechurched 탈 교회화”라는 말이 있 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미 국에서 4천만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질병과 같 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 나, 어떤 이유 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 다. 이러한 통계를 소개하는 기독교 잡지 에 따르면, 지난 30-40년 동안의 국제적, 사회적 큰 변화들을 탈 교회화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구소련

의 냉전시대의 종식, 미국 국민의 정치적 성향의 양극화가 그것입니다. 냉전시대 에 미국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여겼습니 다. 이에 발맞춰 미국인 크리스천들은 긴 장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 전시대가 끝나면서, 그 긴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양극화되면서, 기독교 적인 성향도 나뉘어지고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911테러도 한 몫을 했다고 분석하 는데, 미국 크리스천들이 911테러를 이슬람 과 기독교의 종교전쟁, 종교분쟁으로 보 면서, 종교의 위협성에 실망하게 되었고, 자연히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은 시대적인 크고 작은 사건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뀝니 다. 신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 대를 지나면서,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가치가 개인의 신앙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는 예배, 예식 보다 개인의 건강과 안전, 취미가 더 중요 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 털, 탈교회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문화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현시대와 맞지 않는 듯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페미니즘과 동성애와 같 은 사상들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현 시 대와 맞지 않는 듯한 기독교와 교회를 떠 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신앙과, 교회관은 지 난 20년 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는 당연 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신 념이 펜데믹을 지나면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은 탈교회화와 맞서야 합니 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 께서 자신의 피 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 는 성령이 하나되게 해 주셔서 모이게 된 공동체이므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우리가 교회로 철저히 모이기에 힘 써야 하는 이 두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끝 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 가지 이유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 어야 합니다. 미국 한인 2세 3세대들은 대학생 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믿는 부모님 들은 자녀를 다그칩니다. 그러면, 자녀들 은 “아빠, 엄마,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냥 교회만 바빠서 안 나가는 것뿐이에요. 나 도 시간 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 어요”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러 게 말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 답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설득할 성경적인 논리가 있으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녀야 되는 두 가지 이유 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설명 해 주십시오. “교회는 믿는 우리를 향한 하 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그리고 네가 교회 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너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다 ‘꼭 교회를 다녀야만 크리스천인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무식한 질문 은 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탈 교회화를 막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결코 신앙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이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 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박사), 목회학(박사(M.Div)), 상담학(박사), 선교학(박사), ESL, TESOL
- 연수과정: 승안 (승안 I~20 차례 발행)
- 연수 후 미주 및 해외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성경사역학철학박사
- 목회학석사
- 교육목회학박사
- 목회학박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발전도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ol & Post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교향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교향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박사, 선교학철학박사,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usa.edu
주소: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발행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ia.edu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SEOUL MEDICAL GROUP

박육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서울의 봄> (4)

식지 않는 인기, 영화 <서울의 봄>이 보여주지 못한 통찰



12·12 군사반란 당일의 사건들을 중심 서사로 삼은 영화 <서울의 봄>.

발해 멸망 후 한반도 세계관 국한 민족 외부와 전 세계 영향 도외시 결국, 일제에 국권 무력하게 뺏겨 김재규·정승화·장태완, 한계 보여

◆편협한 민족의식: 고립된 지정학적 정세 속에 탄생한 한민족의 정체성

현재 국내 극장가 상황을 보자면, <노랑: 죽음의 바다>가 누적관객 400만을 목전에 두고 흥행세가 주춤한 데 비해 <서울의 봄>은 누적관객 1,200만을 돌파하며 흥행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서울의 봄>이 <노랑: 죽음의 바다>보다 더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연출로 극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한일 간 외교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데다 양국 간 민간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반일' 코드가 영화의 흥행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된 점이다.

<서울의 봄>과 <노랑: 죽음의 바다>이 두 작품 모두는 기본적으로 진보좌파와 진영의 역사관을 대변한다. <서울의 봄>이 군사독재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면, <노랑: 죽음의 바다>는 한국과 일본의 오래된 군사적 긴장관계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진보좌파와 진영의 근현대사 인식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반일자주와 민주화(정확히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화)의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진보진영 역사관을 대표하는 격언이 하나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로 알고 있지만, 실상이 격언은 출처가 불분명한 일종의 속담 같은 말이다. 그렇지만 이 말이 저명한 항일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격언으로 인식되면서 진보진영에서 반일, 반파쇼 정신을 고취시키는 말로 자주 인용되곤 한다.

모든 격언이 그렇듯, 이 말은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역사'라는 말에 담긴 뜻이 워낙 함축적이어서, 사람마다 이 격언을 이해하는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이나 <노랑: 죽음의 바다>가 보여주는 '한민족 역사'란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 국내 군사독재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이다. 그런데 이 역사관은 다소 편협한 민족의식을 대전제로 삼는다는 약점이 있다.

한민족 세계관은 926년 발해 멸망 후 약 1천 년 넘도록 한반도에 국한돼 있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서쪽으로는 당대 최강대국인 중국이 자리잡았고, 북쪽으로는 호전적인 유목 부족과 시베리아의 험난한 자연환경이 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남쪽·동쪽은 바다와 일본 열도로 막혀 있었다. 이에 남북국 시대 종료 이후 한반도에 들어선 두 왕조, 고려와 조선은 주변국에 비해 상당히 폐쇄적이고 고립된 정치체제와 문화양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런 정치적·문화적 폐쇄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험난한 제국주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를 통해 와해될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군국주의 일본의 자충수 덕에 가까스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적 부침과 질곡 가운데 한국인들은 외세 침략에서 비교적 안전하던 시절, 지정학적으로 거의 고립되다시피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복고적 역사관을 구축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사적 격변과 민족 외부 영향을 도외시하는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역사관을 확립하게 됐다.

◆넓게 열린 국제정세 인식: 거시적 정세를 이용할 줄 아는 정치적 지혜

한국 근현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폐쇄적이고 편협한 민족의식과 역사관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갑신정변에서 경술국치에 이르는 시기 조선 왕실과 대다수 엘리트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허술한 외교적 안목과 내부 정권다툼 끝에 국권을 일제에게 무력하게 빼앗기고 말았다.

1919년 3·1운동을 돌아보면, 비록 그 동기는 숭고했지만 저항 방식과 전략은 미숙했다. 무엇보다 민족자결주의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답답할 정도로 무지했던 탓에, 무모하고 비극적인 궤기로 귀결되고 말았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패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해체를 위해 내건 공약을, 마치 모든 식민지 해방의 메시지인 양 잘못 받아들인 어리숙함이 실패의 주 요인이었다.

일제강점기 내내 이어진 독립운동 역시, 뜻은 높았지만 그 결실은 보잘것없었다. 그나마 일정한 결실을 맺은 인물이 있다면, 태평양 전쟁과 그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미국 기독교계의 후원에 힘입어 한반도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잡도록 힘쓰고 산업화 초기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그가 한반도 내부에만 갇힌 편협하고 전근대적인 민족의식과 역사관을 벗어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정치와 지정학적 식견을 가졌던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한민족 중심의 세계관에 갇힌 인물은 아니었다. 친일 성향이 뚜렷해 자주 비판을 받았고 임기 말년에 판단력이 크게 흐려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박 전 대통령도 나름 탁월한 국제정치적 식견을 갖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냉전의 엄혹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 기조와 산업화 조류에 편승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베트남 참전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을 이용해 산업화의 결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외세 개입을 죄악시하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옹호하던 인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목이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묘사하는, 10·26 사태에서 12·12 군사반란,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좁은 민족 자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당시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자유 개념에 입각해 보는 시각이 서로 충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0·26 사태에서 12·12 군사반란,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좁은 민족자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당시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자유 개념에 입각해서 보는 시각이 서로 충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0·26 사태로 인한 독재자의 사망과 커다란 권력 공백은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독재에 지친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권력구조 정립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황은 어설피고 실험적인 한국형 민주주의로는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들이 산적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을 포함한 세계 각국 독재정권을 쫓아다니던 카터 행정부는 계속되는 실정으로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고 있었고, 북한은 돌발상황으로 인한 대한민국 내부 혼란의 격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미 국무부와 CIA는 대한민국 내부의 긴급한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속하게 혼란을 가라앉히고 북한에 의한 안보위험을 불식시킬 인물을 찾고 있었고, 10·26 사태 수사를 총지휘하면서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전두환 보



영화 <노랑: 죽음의 바다> 역시 한민족 역사를 순전히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 국내의 군사독재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으로만 바라보는 다소 편협한 역사관을 반영한다.

안사령관의 행보를 묵인하면서 그를 잠정적인 차기 권력자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당시 미국의 외교 및 정보담당 요인들과 전 세계 자유민주진영 외교 담당자들이 보기에, 암살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려 했던 김재규와 그 김재규를 비호하던 정승화·장태완 등이 당시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적·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여겨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시 야권에서 정권을 노리던 김대중·김영삼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 또한 그 커다란 권력 공백과 군부 내의 혼란을 해결할 만한 역량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계속>

박육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담임목사 청빙 공고

올 네이션스 교회는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수도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버지니아 주(VA), 비엔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Kingdom Dream (수백명 선교사 파송, 2세교육, 지교회 설립)의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에 선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목회경력(Full Time) 5년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신 분
-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 거주 및 사역에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 서류

- 이력서 - 중요 경력 포함
- 목사안수 증명서 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목회철학과 비전 (Letter Size - 2장 이내로)
- 추천서 (2명 이상 - 소속교회, 시무교회 각 1부)
-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성장배경, 가족소개: Letter Size - 2장 이내로)
- 6개월 이내의 한국어 설교 동영상 2개 이상 (YouTube 및 인터넷 링크 제출요, Required)
- 6개월 이내의 영어 설교 동영상 (선택 사항, Optional)
- 가족사진

3. 제출 방법: 이메일 및 우편

- Email: CFANinVA@gmail.com
- Mail: (Attn: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The Church for All Nations 8526 Amanda Pl., Vienna, VA 22180)

4. 제출 기간: 1차 마감 4월 30일까지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임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올 네이션스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www.thecfan.com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특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교회 재활성화

죽어가는 교회 살리는 성경적 방법



지난 20년 동안 북미에서 해마다 평균 약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 남아 있는 교회 중 약 88-91%의 교회가 점차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 자료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대략 10%의 교회만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10%도 성도 숫자만 계산한 결과라서, 교리의 건전성, 성도의 삶의 거룩함, 교회의 건강한 기능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극히 적은 숫자만이 건강한 교회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붙어다치는 것 같은 저항에 부딪힌 5년의 사역 경험, 그리고 건강한 방향으로 선화하게 된 그 후 5년의 사역 경험, 그 가운데 저자가 배운 건강한 교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

그 교훈들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의 가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즐거움, 성도의 상처를 바라보며 동정하는 통찰력,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저항, 그리고 교회의 목자장으로서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교훈들이다.

저자는 교회 부흥 혹은 건강 증진을 고찰할 때, 많은 사람이 실용주의자나 순수주의자 이 두 극단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 실용적 노력이 필요하고 순수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둘 중 하나에 치중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접근은 건강한 교회에 관한 순수하고 바른 정의,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능력 모두를 추구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 되살리기’의 키워드는 능력, 준비, 인내, 계획, 권위, 리더십, 구성원, 하나 됨, 예배 등이다. 저자 크로프트는 먼저 교회 살리기의 성경적 의미를 정의내리기 위해, 교회를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힌다.

하나님은 교회에 일꾼을 세워 그 몸을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은사와 성품이 준비된 일꾼이 오래참고 온유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는 고전적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목회자의 일대일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다.

죽어가는 교회가 대부분 가지는 문제는 권위의 문제다. 하나님·예수님·성령님, 그리고 교회 일꾼과



©픽사베이

교회 공동체가 분명하게 세워진 질서를 가지고 세워져야 한다. 특히 일꾼(리더십)은 직분이나 경험, 나이나 경력으로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다. 목회서신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서 권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교회는 일꾼 혼자 세우는 독무대가 아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며 스스로 세워간다. 성령계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길 때 더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다. 사랑으로 봉사할 때 교회는 하나로 연합된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배를 위한 공동체다. 하나님은 마귀와 세상, 자기 자신을 예배하던 우상숭배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항상 예배가 살아있고, 사실상 교회로서 하는 모든 일, 즉 봉사와 섬김과 찬양과 말씀과 돌봄과 교제 모든 영역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된다.

먼저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과 교회 전체의 건강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이언 크로프트의 <성경적 교회 살리기>를 통해 그 첫 발걸음을 떼 보는 것은 어떨까? 그는 17년간 많은 저항과 문제와 맞서 싸우며 오래 참고 온유하게 또 성실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교회를 되살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다.

그의 따뜻하고 정직한 권면에 귀를 기울인다면, 독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로 자라나기 위한 힘을 얻고, 속한 교회가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닮아가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구한다.

조정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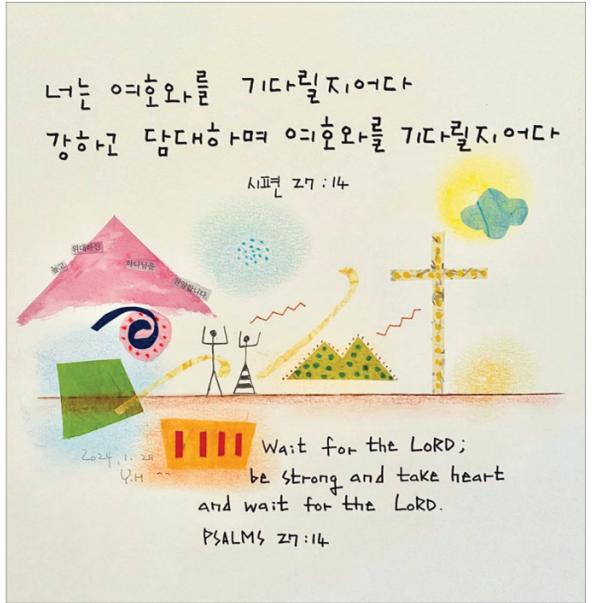
성경적 교회 살리기

브라이언 크로프트 | 신지철 역 | 생명의말씀사 | 216쪽 | 15,000원

죽어가는 교회가 갖는 문제 대부분은 권위의 문제다. 하나님·예수님·성령님, 그리고 교회 일꾼과 교회 공동체가 분명하게 세워진 질서를 가지고 세워져야 한다. 특히 일꾼(리더십)은 직분이나 경험, 나이나 경력으로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다. 목회서신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서 권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교회는 일꾼 혼자 세우는 독무대가 아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며 스스로 세워간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1월, 작가들의 말말말]

■김경덕-교회 다니면서 교회사도 몰라?

AD 1세기, 지진과 화산 폭발, 흑사병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세상을 외면하고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

장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소란스럽고 무질서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어떻게 판단하지? 누구에게 물어 봐야 하나?” 지도자의 부재와 이단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교회는 좌초해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네, 바로 정

확한 ‘기준’이었습니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진리의 전달자인지, 누가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단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는지,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더 이상 말이 아닌 문자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책이었습니니다.

Proverbs318Law.com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한인 청소년들이 뽑은 2023년 영웅과 전설 출판기념 리셉션

한인 2세 청소년들이 참여해 선정한 2023년 '영웅과 전설 (Heroes and Legends)'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출판 기념회가 지난 20일 LA한인타운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들이 뽑은 올해 한인 커뮤니티의 '영웅과 전설'은 LACMA 미술관에 수많은 그림을 기증한 비행기 조종사의 전설인 체스터 장 박사, 정소현 작가, 테디 최 박사, UDLA의 창립자 루벤 허난테스, CJ ENM America 회장 엔젤라 킬로엔, 선교사 글로리아 김, HAPA Day 창립자 티아 레고스키, 전 LA소방국 부국장 에일 맥, 전 3가 초등학교 교장 수지 오 박사,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모니카 류, KBS 원로 아나운서 위진록 씨 등이다. 이 책은 개인 소

장은 물론 각 주요 학교와 도서관에 보낼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총괄한 크리스토퍼 이 감독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20년이 넘고 300만 명의 한인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한인 사회 문화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길러주는 데에 관심이 없는 지 오래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인 2세들정체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위진록씨는 "자랑스러운 미래 후손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 어느 큰 상보다도 더 의미가 있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체스터 장 박사는 2월에 Korean Treasure이라는 주제로 LACMA에서 그가 기증한 소장품들을 전시한다며, 초대 인사말을 전했다.



한인 2세 청소년들이 참여해 선정한 2023년 '영웅과 전설 (Heroes and Legends)' 출판 기념회.

이번 행사는 공정성을 위해 아 족과 지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행 감독이 출판의 모든 과정을 총괄 무런 단체에서의 후원이 없이 가 사가 이루어졌고 크리스토퍼 이 했다. 김민선 기자

'건강세미나' 는 후끈 ... 한인 시니어들의 적극적 참여

센터메디컬그룹이 주최한 <100 세시대, 당신의 노후는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주제의 건강세미나가 큰 호응속에 마무리 되었다.

세미나는 1월 23일, 30일 두 날 짜에 걸쳐 총 4곳의 노인아파트에서 진행되었으며, 한인시니어들이 대거 참석해 유익한 시간을 나누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한 김학준 주치의의 꼼꼼한 준비와 설명을 통해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다.

건강세미나는 2023년부터 시작된 센터메디컬 그룹의 월례 행사로 시니어들을 찾아다니며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해 강연하는 봉사 활동이다. 매회 거듭할수록 참여



센터메디컬 주최 건강 세미나가 1월 23일, 30일 4곳의 노인 아파트에서 열렸다. ©센터메디컬

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센터 메디컬그룹은 늘 참여한 시니어들에게 선물이 들어 있는 구 다백도 증명하고 있다. 이번 세미

나는 약 백여 명이 참여하여 2024년 첫 세미나는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김민선 기자 문의: (714)980-3532

2024 설날 큰 잔치 2월 7일 개최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 센터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오는 2월 7일(수) 10:30am 아래와 같이 설날 큰 잔치를 개최한다.

설날을 맞아 한인타운 어르신들이 한마음으로 즐겁게 모여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니어센터는 한국무용(지도 고수 희교수), 장구(지도 최혜련교수), 피아노(지도 살린서교수), 하모니카(반장 박증규), 실버발레(지도 진최교수) 등 공연과 함께 참가한 300명

(사전 배포 초대권 소지자에 한 함)에게 잔치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쌀 15 파운드 300포(박대갑네 기증), 겨울 고급 스카프 300개(Fame Accessories 대표 이은혜 기증), 홍삼톤 300박스(정관장 기증) 등을 전달한다.

이번 행사는 KLK Capital Management LLC(대표 김형진), Well-care보험, 서울메디칼그룹(회장 차민영), PCB Bank(회장 헨리김) 후원한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기사 제공

효사랑 시니어대학 봄학기 개강 2월 13일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시니어대학(학장 정찬균 목사) 2024년 봄학기를 개강한다. 봄학기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효사랑 시니어대학은 "성경적

효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 존경받는 어르신의 삶이다"라고 밝혔다. 봄학기는 1) 성경과노라마, 2) 음악 교실, 3) 난타 교실, 4) 힐링 댄스, 5) 하모니카 교실, 6) 영어 교실, 7) 사진 교실, 8) 악기 클라리넷, 9) 미술(페인팅) 교실 등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별 강좌는 3개월 코스로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유튜브에서 '효사랑선교회' 혹은 '효사랑 시니어대학'을 검색하면 동

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개강은 2월 13일(화)이며 총 17주 동안 진행된다. 또 매년 2회 학기를 마치면서 멕시코 앤세나다에 있는 양로원과 여성 갱생원, 청소년 갱생원에 1박 2일 일정으로 단기 선교도 가게 된다. 학기 중에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봉사 활동도 한다. 등록금은 매월 100불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장소: 7342 Orangethorpe Ave #B 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714-833-2710, 562-833-5520

오픈뱅크, 복음의 전함 MOU 체결

오픈뱅크와 한국의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익적인 연대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픈뱅크와 복음의 전함은 30일 오픈뱅크 본사에서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민선 기자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오른쪽)과 복음의 전함의 고정민 이사장이 상호 협력을 다짐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멧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Baeksong.kr

LA 백송교회 2024 영성축제

제 14회 Victoria Lee Praise Concert

이순희 찬양 콘서트

2024/2/24 (토) 오후 3:00 LA백송교회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수양관 관장
기독교 생활영성연구원 원장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서울신학대학원 Th.D 선교학
서울신학대학원 Th.M 선교학
서울신학대학교 / 신학대학원 M.Div

도서 <복음과 영적전쟁>, <복음과 내적치유>
<복음과 인생설계>, <복음과 가족치유>
<영혼을 살리는 찬양> 1,2,3,4,5 저자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LA백송교회 18차 성령 컨퍼런스

2024/2/25 (주일) - 3/6 (수) 저녁 7:30

성령컨퍼런스는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회복의 예배로 깊은 영성훈련에 돌입하는 집회입니다.



LA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불같은 성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미주성결교회

LA 백송교회